

토지 보상비 때문에 되는 일 없다

전남도 관광개발 계획 세웠다 하면 땅값 치솟아 박지사 “기업들 투자 못하면 관광단지 해제하라”

전남지역 땅값이 도내 관광투자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토지 소유자들이 턱없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전남도는 급기야 과도한 토지 보상비가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업 포기’는 물론 관광단지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비교 우위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이 들쭉거리면서

투자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실태 및 감독 강화 발표 이후 PF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것도 모자라 토지가격까지 불안한 탓에 관광 분야 투자가 훨씬 힘들어졌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가 지난 2004년 이후 호텔·리조트 등 건립을 위해 모두 24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현재 실현된 것은 2곳에 불과한 것도 땅값 상승이 한몫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출자여 예정돼 있는 반면, 고급 관광·숙박업소가 절대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토지가격이 갈 길 바쁜 전남도의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예컨대 신안군의 경우 증도에 건립된 엘도라도 리조트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지난해 ‘증도 건강휴양단지 건설 계획’을 마련했지만 여지껏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 증도 건강휴양단지 개발방안은 3000억원을 들여 증도면 우전리 일대(115만3160㎡)에 리조트

형 콘도(1만9913㎡·414실)·빌라(1만 5291㎡·402실)를 비롯,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올라 지난해 계획 수립 당시 산정한 토지보상비(30억)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신안군측 설명이다.

현재 개발예정지 땅값은 3.3㎡당 15만~20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30만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지난 2003년 엘도라도 리조트 개발이 이뤄질 당시 땅값(3.3㎡당 3만~4만원)에 견줘 무려 5배를 넘는다는 신안군은 건강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비로만 100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태풍 ‘덴무’ 북상 내일 목포 영향권



북상중인 제4호 태풍 ‘덴무(DIAN-MU)’의 영향으로 10일과 11일 광주·전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대만 동남동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덴무는 10일 오후 3시께 서귀포 남서쪽 약 2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11일 오후 3시께는 목포 남남동쪽 약 40km 부근 육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방은 10일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40~80mm(남해안과 동부내륙 지리산 부근 150mm 이상).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로 폭염은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며, 11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한편, 광주는 9일 낮 최고기온이 34.6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양수현기자 yang@



‘김대중 동상’ 12일 제막식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주기(8월18일)를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전남도는 오는 12일 무안 남암 신도시 전남도청 앞 ‘김대중 광장’에서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박준영 전남 지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연다.

동신대 김왕현 교수가 제작한 ‘인류의 평화-김대중’이란 주제의 이 청동 전신 입상은 높이 6.3m(좌대 포함)로 한반도 평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한 김 전 대통령의 인자하면서도 강직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설계와는 달리 김 전 대통령이 해쳐온 역경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민손에서 왼손에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바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학교실림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는 큐레이터의 요람

9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국제큐레이터 과정’ 개강식에 참석한 국내외의 수강생들이 강사의 강연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15개국 23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맨 캐머런 등 세계적인 큐레이터로부터 다양한 현대 미술 담론을 배우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00억 쓴 광엑스포 수입은 27억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 ‘2010 광주 세계엑스포’가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시 자산으로 편입되는 주제영상관과 빛음악분수 등 시설물 설치비용 120억원을 제외하면, 운영·관리비로 274억원의 예산을 들여 10% 수준의 수입을 얻는데 그친 셈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재)광주세계엑스포에는

시비 304억원과 국비 90억원 등 394억원이 투입됐으며, 148만명의 입장객(주전시관 101만명, 빛축제 47만명)이 관람해 27억원의 입장 수입을 거뒀다.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시기가 지난 해에서 올해로 연기되면서 62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데다 ‘천안할 사태’로 인한 분위가 저하, 무료 입장객 증가, 입장권 외 수익구조 전무 등으로 인

해 기대만큼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 (재)광주세계엑스포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설설치비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4월2일부터 5월9일까지 38일간 광엑스포가 개최됐다는 점에서 하루 평균 6억5000만원을 쏟아부어 이 번트를 유지했다는 결론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구조가 미약한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벤트를 개최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구조분석을 통해 채산성을 확보한 뒤 엑스포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재단법인 관계자는 “현재 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입장 수익 이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엑스포를 격년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장에 조현오

조현오(55·사진) 서울경찰청장이 강희락 경찰청장 후임자로 내정됐다.



경찰위원회는 9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데 동의했다.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조 내정자는 외무고사(15회)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사이버테라대응센터장, 서울 중앙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관리관, 경찰청 감사관, 경찰청 경비국장,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수분의 호환성
비드림이
스킨케어 전력까지
분해했다
Subhason